

MOOK

문화다양성 추천만화 vol.2

기후위기 시대 : 자연과 인간



2024. 2

 홀통만화연구소

문화다양성 추천 만화 Vol.2

발행일 | 2024년 2월 29일

지은이 | 홈통만화연구소

김성진 | 문종필 | 서은영 | 서찬휘 | 송하원 | 최기현 | 한상정

펴낸곳 | 홈통만화연구소

후 원 | 만화연구와 비평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ometong2020>

이메일 | hometong2020@naver.com


연구소 | 02-745-1447




Copyright (c) 2023 by 홈통만화연구소

Some rights reserved, 이 책의 내용(텍스트)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추천 만화 Vol.2는
“기후위기시대 : 자연과 인간”을 주제로
홍통만화연구실이 추천하는
열 아홉 권의 작품과 리뷰를 담았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고 상상해야 할 때

설날 연휴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인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인천을 떠나 동대구행 KTX에서 내려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까지 발걸음을 옮긴다. 1번 출구를 향해 몇 걸음 지나지 않아 낯선 조형물과 마주한다. 그것은 '기후시계'라는 조형물이다. "기후시계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남은 양(탄소예산)을 시간으로 변환"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폼 말에 적혀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5년 162일 2시간 3분 32초를 지나고 있으니, 이 시계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년 안에 모두 소비되어 1.5°C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니까 2030년 쯤 지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익숙한 생태계는 빠른 속도로 왜곡되겠다. 가보지 않은 미래이지만, 불안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무엇보다도 동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로부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희망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기후위기의 재앙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니 그렇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이변으로 사회적 약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매스컴에 소개될 때에만 동시대 사람들은 기후위기 재앙에 잠시 시선을 돌릴 뿐, 지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예외가 아니다.

의식 있는 소수의 정치가나 예술가(활동가)들만이 지속해서 이 문제에 감정을 내줄 뿐, 대부분 사람들은 노동, 기술, 인구소멸, 인권 등 먹고사는 문제와 금지있게 사는 문제 이외에는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듯하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기후위기 재앙은 '불안'을 품고 다가오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해 <홍통만화연구실>에서는 일군의 만화 칼럼니스트, 만화연구자, 만화평론가, 문화기획자, 문학평론가 등이 모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기후위기 재앙 관련 만화 텍스트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쉬운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후위기 재앙 문제가 현대인에게 뻗속까지 침투해 타격을 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많은 작품을 찾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기후위기 담론과 관련된 책을 소개하고,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홍통만화연구실>의 의도가 희석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겠다. 즉, 리뷰를 쓸 해당 작품이 생각보다 적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나 가치를 부여할 텍스트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가치 있는 작품들도 확인된다. 그러나 독자들이 이 사실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아쉽지만 <홍통만화연구실>에서는 기후위기 담론 관련 작품을 가까운 시간에 보강하겠다는 말로 작업 환경에 대한 틈을 달래려고 한다. 독자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다.

두 작품이 떠오른다. 우선 아담 맥케이 감독의 <돈 룩 업>(Don't Look Up, 2021)이다. 이 작품에서는 두 명의

무명 과학자가 등장한다. 이들은 우연히 커다란 행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무명의 두 과학자가 이런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으니 주변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무명’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들의 주장은 영화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을 애써 설득한 후에도 행성에 숨겨진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행성을 파괴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첨단 기술을 소유한 집단은 행성의 충돌을 화려한 기술로 막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한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구는 행성에 충돌하게 되고, 인류는 공룡처럼 멸종하게 된다. 이처럼 행성 충돌 과정에서 확인되는 풍자적인 모습은 기후위기 재앙을 대하는 현대인의 표정과 무관하지 않다. 또 다른 작품으로는 웹툰 <이태원 클라쓰>로 유명한 광진 작가의 <홀리데이>(2022~2023)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천재 강마루는 앞으로 닥칠 기후 위기 재앙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백신’을 빌미로 국가가 아닌 세계와 협상한다. 자신의 입장을 세계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을 배포하지 않겠다는 사실로 인류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다. 그렇다면 천재 강마루가 ‘백신’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강력한’ 힘을 지닌 환경단체기구이다. 천재 강마루는 이 방법만이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다소 위험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웹툰은 독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과 소신을 지킬 수 있는 ‘환경단체기구’라고 말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사람들은 기후위기 담론에 여전히 시큰둥하고, 문단이나 학계 또한 담론을 ‘소비’하는 형태로만 취급하고 있으니 그렇다. 따라서 광진 작가의 문제 제기는 유효하다고 본다.

<홍통만화연구실>의 작은 몸부림도 마찬가지다. 만화 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선별한 기후위기 담론 관련 작품을 독자들이 읽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마음이 정치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기후위기 재앙과 관련해 미래는 심각하게 어둡지만 우리의 이행이 쓸모없지는 않다고 믿는다. 나비 효과처럼 희망적인 작은 몸짓이 조금이나마 이 세계에 쓸모 있는 반향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만화’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한 <홍통만화연구실>의 의지는 이처럼 소박하지만 의식적이다. <홍통만화연구실> 구성원 모두 이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바다. 본문에 소개된 짧고 명쾌한 글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줄 것이다.

홍통만화연구실 드림

김성진 | 문종필 | 서은영 | 서찬휘 | 송하원 | 최기현 | 한상정

목차



- 2p 기후위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고 상상해야 할 때
- 6p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 | 산호 지음 | 고블 | 2023
- 9p 그린스마일 | 권혁주 지음 | 세미클론 | 2011
- 12p 기후위기인간 | 구희 지음 | 이유진 감수 | 알에이치코리아 | 2023
- 15p 나의 비거니즘 만화 | 보선 지음 | 푸른숲 | 2020
- 18p 늑대 | 장마르크 로세트 지음 | 조민영 옮김 | 리리 | 2022
- 21p 대멸종이 온다 | 장버티스트 드 파나피외 글 | 알렉상드르 프랑 그림 | 이정은 옮김 | 이원영 감수 | 탐 | 2012
- 24p 만화로 보는 기후변화의 거의 모든 것 | 필리프 스퀴르조니 지음 | 해바라기 프로젝트 옮김 | 안병욱 감수 | 다른 | 2015
- 27p 멸망한 세계에서 우리가 나비를 쫓는 이유 | 조나단 케이스 지음 | 조은영 옮김 | 원더박스 | 2023
- 30p 미세먼지에서 살아남기 | 콤팩토리 글 | 한형동 그림 | 윤순창 감수 | 미래엔아이세움 | 2014
- 33p 바닷속 유니콘 마을 | 케이티 오닐 지음 | 심연희 옮김 | 보물창고 | 2020
- 36p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 미야자키 하야오 지음 | 학산문화사 | 2010
- 39p 수역 | 우루시바라 유키 지음 | 오경화 옮김 | 대원씨아이 | 2011
- 42p 은하의 죽지 않는 아이들에게 | 시카와 유키 지음 | 김동욱 옮김, 문학동네 | 2021

45p 적색목록 | 백영욱 지음 | 책공장더블어 | 2023

48p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 시용 위로 지음 | 한지우 옮김 | 김영사 | 2022

51p 지구를 위해 모두가 채식할 수는 없지만 | 하루치 지음 | 판미동 | 2022

54p 체르노빌의 봄 | 엠마뉘엘 르파주 지음 | 해바라기 프로젝트 옮김 | 길찾기 | 2012

57p 토성맨션 | 이와오키 히사에 지음 | 오지은/박지선/송치민 옮김 | 세미콜론 | 2008

60p 풍요로운 지구를 만드는 생물의 다양성 | 다니엘 카자니브 그림 | 위베르 리브스·넬리 부티노 글 | 문박엘리 옮김
| 생각비행 | 2020

63p 프로젝트 후기

70p 홀통만화연구소 및 필진 소개

※ 추천 만화 및 리뷰는 작품명 가나다순으로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는
죽은 무화과나무와 오천삼백 원짜리 애호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2023, 산호 지음, 고블

#SF판타지 #एको페미니즘 #마녀 #재난 #산불

최근에 만화가 산호의 작품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이하 '그마숲'으로 표시)를 읽게 되었다. 이전에 그녀가 출간한 작품이 여럿 있었지만, 이번 신작은 무게감이 달랐다. 뭐랄까. 작가의 의도가 막중하다고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마숲> 책 뒤에 실린 '작가의 말'을 읽어 보는데 이 무게감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작품 정체는 무엇이고, 이 무게감으로 인해 드러난 작품의 표정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텍스트의 실체부터 적어보기로 하자.

만화가는 기후위기에 대한 그 어떤 작가보다도 관심이 많다. 그녀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다. 동시대의 기후위기 담론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만화가 산호 곁에는 무화과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그녀에게 계절을 선물해 주었다.

“봄에는 연한 색 잎자루가 별에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여름에 다다라 있는 아래 작게 맺히기 시작한 열매는 가을에 접어들 무렵 진한 빛깔로 익어갔습니다. 높은 곳에 달린 무화과는 박새며 찌레끼, 까치의 몫이었습니다. 눈이 내린다고 해도 진눈깨비로 훑날릴 뿐인 곳에 살았습니다. 눈 소식을 듣고 나와도 지상에서는 한 움큼의 설경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나뭇가지 위에 조금 쌓인 싸락눈을 보았을 때는 한없이 반가웠습니다. 그 나무에 머무는 모든 계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362)

하지만 무화과나무는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아무런 배려 없이 잘리게 된다. 이 사건은 산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잘려 나간 무화과나무 줄기 몇 개를 가져와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여름을 넘기지 못했다. 만화가는 망연자실하게 된다. 또한, 그해 여름 제습제를 사기 위해 찾아가던 마트에서 새로운 충격을 받는다. 천원이었던 애호박이 오천삼백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때 산호는 “비로소 재난”(367)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의식이 <그마숲>을 제작하게 된 동기가 된다. 그러니까 한 만화가의 개별적인 사연이 작품 주제가 된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입장은 동시대에 가장 중요한 담론 중에 하나인 기후 위기 담론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무게감으로 인해 드러난 작품의 표정은 무엇일까. <그마숲>은 SF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산, 초원, 너울, 서리, 나송주 기자, 장범선 소장은 산불 피해로 인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를 본 인물이고, 이런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만화가 산호는 '마녀' 개념을 끌고 와 세계관을 확장한다. 동시대에는 '마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만화가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차용해, 숲을 지키고 돌보는 마녀가 부정적인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을 힘있게 역설한다. 즉, 동시대에는 기후위기에 대해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마녀' 개념을 빌려와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만화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재현된 텍스트의 표정을 천천히 느리게 탐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만화가가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돌파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태도는 만화 읽기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 재앙에 한 걸음 대처하는 행위가 될 듯하다. | 문종필 |

인간은 배고프지 않아도 사냥하는 존재야



© 2011, 권혁주 지음, 세미콜론 | 전3권 |

#하프물범#북극의얼음이녹아요#엄마를찾아서#지구온난화

〈그린스마일〉은 하프물범 움비가 인간에 의해 엄마와 강제로 이별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북극에 사는 아기 하프물범 움비는 엄마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쇠빙산에서 쇠갈고리를 든 사람이 나타나 움비 모자에게 다가온다. 위협을 감지한 움비의 엄마는 본능적으로 움비를 바닷속으로 피신시키고 자신도 도망가려고 한다. 움비가 정신을 차려보니 얼음 위에는 피를 흘리며 인간에게 잡혀간 엄마 하프물범의 흔적만 남았다.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움비는 북극곰 예코와 함께 엄마를 찾아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여행을 떠난다.

독자는 움비가 엄마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다. 그러나 만화를 읽으면서 ‘혹시라도 엄마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된다. 움비는 여행을 하면서 인간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모를 잃은 북극곰, 새, 거북이, 고래 등을 만난다. 이들의 슬픔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고 동물의 삶은 인간의 욕심과 대비된다.

〈그린스마일〉은 엄마를 찾아 떠나는 하프물범과 북극의 얼음이 점점 녹아 살 곳을 잃어버린 북극곰의 여행을 그렸다. 이 만화의 가장 큰 매력은 동물의 시선으로 인간과 자연을 담았다는 점이다. 만화에 나오는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포획하는 나쁜 존재로 등장한다. 작가는 대체로 인간의 감정이나 표정을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는 독자가 동물이 느끼는 감정에 몰입하는 효과를 낸다. 서사의 진행에 따른 바탕색의 변화도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와 연결된다. 만화 초반에 얼음과 하늘을 파란색 위주로 표현하여 안정감을 나타내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따뜻해지는 기온을 빨간색 계열로, 아마존 밀림 지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초록색을 중심으로 표현하여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졌다. 자연과 동물은 인간에 의해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이자 슬픔을 느끼는 존재이다. 북극곰 예코의 말처럼 배고프지 않아도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다. 동물이 사는 터전(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이 훼손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다.

지구온난화, 쓰레기와 플라스틱 섬, 기름 해양 유출사고 등 환경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학습만화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그린스마일〉을 단순히 학습만화로 분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대로 동물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연과 인간의 모습, 그리고 동물이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은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만화와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이 만화는 한 마디로 '동물의 시선으로 환경위기를 바라본 만화'다. 첫 장면에서 엄마와 헤어진 움비는 엄마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움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린스마일>을 읽어보자. | 최기현 |

기후위기는 과학자, 정치인, 기업인들이 책임지라고요?
그들 모두 국민들의 지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그들이 바뀌고 우리 모두가 바뀌어요

기후위기인간^{°C}

구희 지음
이유진 감수

나의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타일러, 이슬아, 이정모 강력 추천

지구가 망한다는데
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부가 모셔가야 할 웹툰”
_corn****

RHK
알에이치코리아

© 2023, 구희 지음, 이유진 감수, 알에이치코리아

#기후위기 #환경보호 #실천 #행동 #연대

구희의 작품 <기후위기인간>은 책 제목 그대로 기후 위기를 어떻게 하면 개인이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작가 스스로 “지구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 이전에 나와 연결된 존재”(320)라는 것을 숙지한 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건강하게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기후 위기에 놓인 지구를 위협한 대상 자체로 간주하는 시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함께 호흡해야 할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지점은 기후 위기와 관련된 다른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다큐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이 영상에서는 죽은 고래의 배를 갈라 죽음의 원인을 확인하는 영상이었다. 사람들이 죽은 고래의 배를 가르자, 배 안에서는 수많은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이 플라스틱은 다름 아닌 인간이 버린 쓰레기였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든 플라스틱이 지구에서 공생하며 사는 다른 종에게 죽음을 불러온 것이다. 누군가는 바다에 버린 플라스틱이 동시대의 기후위기와 무슨 연관이 있는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분량의 플라스틱은 현재도 생산되고 있고, 버려진 플라스틱 처리 문제를 인류가 떠안을 수밖에 없으니 그렇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땅에 묻기도 하고, 강과 바다에 버리기도 하고 소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끼친다. 운 좋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재활용되기도 하겠지만, 이 과정이 순수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기후위기 위험 물질이 방출되기도 한다. 플라스틱은 만 들어 지기는 쉬어도 “500년 동안 썩지 않는 그것”(99)이니 처리 문제로 인해 곤혹인 것이다. 그러니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버려진 쓰레기는 썩지 않고 “내 이웃에, 지구 곳곳에, 오늘 내 밥상에, 지금도 플라스틱은 기후위기의 형태로 내게 돌아오고”(99)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만화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만화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녀는 떡볶이집에 갈 때, 떡볶이를 담을 수 있는 냄비를 가져간다. 이유는 플라스틱으로 이뤄진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기 위해서다. 중요한 것은 떡볶이를 담을 수 있는 대체 용품인 ‘냄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만화가 구희는 독자들에게 대신 담을 냄비를 추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하우를 알려준다. 즉, “냄비는 더 무겁고, 뼈뺏하게 들었다가는 대참사가 벌어진다”(108)는 것을 독자와 함께 나눈다. 그리고 나선 이것이 “나의 첫 ‘용기’ 있는 도전”(108)이었다고 독자들에게

고백한다. 이러한 내용이 구희의 작품 <기후위기인간>에 담겨 있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추출할 수 있게 한다. 즉, 기후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 명의 만화가가 어떤 방식이든지 직접 실천하는 과정을 함께 나눔으로써 현실적인 이행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것이다.

인류에게 펼쳐진 기후위기에 대항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순적일 수도 있다. 가령,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하는 소고기를 구희는 될 수 있으면 먹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돼지, 닭은 ‘최대한’ 먹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안 먹는 것과 덜 먹는 것을 두고 누군가는 지구를 구한다고 책을 쓴 사람이 닭과 생선과 치즈 먹는 행위를 보고 모순적이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미 지구의 메커니즘은 어떤 방식이든지 지구의 자원을 소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희는 “내가 모순적이라고 해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179)라고 말한다. 그렇다. 기후 위기로 인해 지금 당장 지구를 멈추는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이보다는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만화가 구희는 이 진실에 의미를 부여한다. | 문종필 |

나는 귀찮더라도 진실하게 살고 싶다



© 2020, 보선 지음, 푸른숲

#채식 #비거니즘 #지구를위한밥상 #동물권 #완벽하지않아도괜찮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살짝 놀랐다. 무엇보다도 페이지를 쉽게 넘기게 한다는 것. 사실 무언가 지식을 전달하려는 만화는 대부분 재미가 없거나 또는 재미에 치중하다 보니 충분한 지식 전달에 실패한다. 이 만화는 이런 두 가지 함정을 현명하게 피했다. 작가가 비거니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은 되새김질이다. 자신이 지식을 습득하고, 그를 자신의 관점으로 오랫동안 생각하고 정리한 후 내보인다. 어려운 용어만 쓰면서 떠들면 사실 잘 몰라서 그런다는 말은 사실이다. 자신이 읽고 생각하고 소화시킨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야말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때이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이 전달하는 지식은 뽀족하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상당히 제거된, 비거니즘에 대해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들을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가장 큰 역할은 주인공이 하고 있는데, 이 인물의 성격 자체가 부드럽고 조심스럽다. 남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는 역할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경험을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는 스타일이다. 게다가 스스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다. 우울증에 걸려있었고, 사람들과 만나는 걸 상당히 불편해하는 소극적인 유형으로 등장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천천히 하나씩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더라는 스토리 라인을 가지다 보니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것인지도 모른다. 본인이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부터 해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애쓰는 것에 대해 최대한 긍정하려고 하는 것,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주인공의 성격과 역할은 이 작품의 그림체나 색감과도 이어진다. 날카롭거나 잔인한 장면들은 충분히 감춰진다. 생명의 예기치 않은 폭력적인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도 색감은 부드러운 파스텔 톤이고, 그림체 역시 단순하고 둥글둥글하다. 그 어디에도 쎈하거나 각을 세우는 부분이 없다.

이러한 시각적인 특징들은 내용에서 전달하고 있는 부드러움과도 연관된다. 비거니즘의 범주가 얼마나 넓으며 어떻게 자연스럽게 동물권과 이어지는지, 환경에 대한 고민도 따라오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충분히 설명된 지식들은 한 권쯤 책꽂이에 뒀다가 필요할 때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책의 말미에 붙은 빠곡한 참고문헌들은, 관심이 있으면 더 찾아볼 수 있게 배치되었고, 인물의

주장이나 지식전달의 정확성과 엄밀성을 증명한다. 그래서인가, 이 책은 한 편의 잘 쓰여진 논문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괜히 많이 팔린 책이 아니다.

그래서 읽고 나면, 메뉴를 선택할 때 망설임이 생기게 된다. 채식을 하겠다는 이들이 멋지게도 느껴진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부터 해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약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설사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각자 조금씩 해보자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이 작품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는 게 아닐까. 어린 학생들에게 그리고 특히 20대 대학생들에게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다. 그리고 답사를 가진 축제를 하건,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 그리고 먹고 남기고 버리는 음식에 대해 한번쯤은 함께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 한상정 |

늑대와 양치기는 어울려 살 수 없어!



© 2022, 장마르크 로세트 지음, 조민영 옮김, 리리

#늑대 #영양단계연쇄반응 #퍼머컬처(permaculture) #리와일딩(rewilding) #공존과공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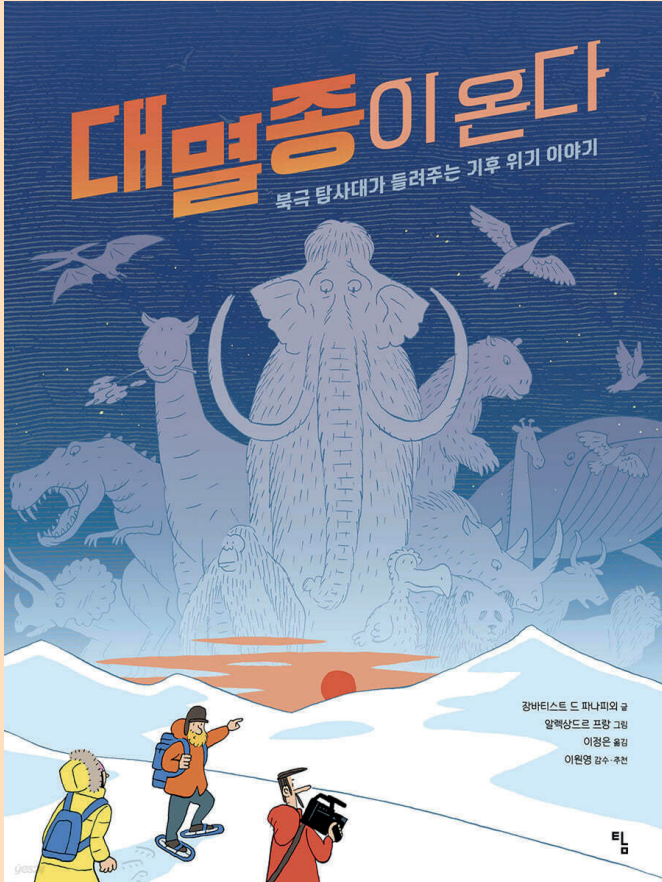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만 보다 보면, 악육강식과 승자독식의 구도에 갇히게 된다. 이 같은 대립적인 세계관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따르기 마련인데, 완전한 정복만이 유일한 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과연 가능할까. 근대 이후 인류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자연 정복을 위해 애써왔지만 성공하지 못하였고, 도리어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작금의 기후환경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자연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관계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모색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화 <설국열차>의 작가로 친숙한 장마르크 로세트의 만화 <늑대>는 프랑스 하계 목장의 양치기 가스파르와 늑대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 새로운 관계 방식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립과 갈등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둘의 폭력적 관계가 죽음을 눈앞에 둔 대자연의 극한상황에서 입장의 동일함을 확인하며 상호공생의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다들게 뭐 있나? 이게 다 돈 때문이지.”

가스파르가 도축장으로 가는 트럭에 오르는 양들을 보며 내뱉는 이 말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연과의 대립적인 관계가 사실은 자본에 의해 왜곡된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 최대치의 효율과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그것을 오로지 인간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우리의 세계관은 기실은 자연을 향한 대적관(對敵觀)에 지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의 왜곡과 환경문제를 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태도이기도 하다. 목축을 위해 늑대를 멸종시켰다가 초식동물의 지나친 번성으로 생태계 붕괴의 위기를 겪었던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늑대복원프로젝트를 통해 '리와일딩(rewilding)'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늑대와 같은 최상위포식자가 직접 관련이 있는 먹이동물 외에도 다양한 종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양단계 연쇄반응(trophic cascade)'과 같은 생태학의 발견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최근에는 과도한 육류 소비를 경계하는 목소리와 산업화된 기업형 목축에서 벗어나는 대안적인 다양한 목축 방식에 대한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만화에 대한 해석 외에도 실천적인 대안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의 후반부에 실린 바티스트 모리조의 글 <야생과의 공존은 가능하다>를 꼭 읽으시길 바란다.

얼마 전, 유행하였던 한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라니까.” 최대이윤의 추구하고 승자독식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명체와의 공생의 길을 찾는다면, 인류는 자연과의 화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돈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 송하원 |

지구의 위기는 인간 때문에 일어났어.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될 거야.



© 2012, 장바티스트 드 파나피외 글, 알렉상드르 프랑 그림, 이정은 옮김, 이원영 감수, 탐

#대멸종 #지속가능한삶 #생태계 #교육용가이드북

대멸종을 실감하기란 쉽지 않다. 인간의 삶은 너무도 유한하여 대멸종은커녕 한 종의 멸종도 목격하는 일은 드물지도 모른다. 게다가 한 인간이 도시에서 태어나 죽는 순간까지 도시생활만 했다면 더욱 그럴 공산이 크다. 도시생활자가 어떤 것의 멸종이나 인프라의 부족함을 경험하는 일은 좀처럼 드물다. 도시 생태계에는 종보다 자본이 더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월등히 생태계의 꼭지점을 차지한 자본에 의해 안락한 삶이 보장된 도시인들에게 넷플릭스에서나 봄직한 북극곰이나 고래의 멸종을 이야기하는 일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회의적이다. 북극곰이 죽어가는 사진을 보고 있자니 마음은 아프지만 도시생활자로서 당장 눈앞의 일들이 산적해 있는 피곤한 마당에 북극곰의 죽음보다 오늘의 나를 위로하는 일이 우선되니 말이다. 이것을 비난할 수도, 그럴 까닭도 없다.

그런 마당에 <대멸종이 온다>는 위기의식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미온적이었다. 최근에 워낙 기후위기에 대한 화두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기에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기에 장벽이 많다. 기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당장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가 많다. 대멸종이 온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리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에 기후위기와 같이 생명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몸소 느끼기 힘든 주제들을 다룰 땐 특히나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 책은 그런 도시생활자의 어려움을 미리 헤아린 것 같다. 이 책에서 북극해를 탐사할 관찰자인 엠마를 가상의 독자로 설정해 거대한 이야기를 따라오도록 유도한다. 엠마는 첫 등장부터 궁시렁거린다.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으니 불편함이 이만저만하지 않다. 그런 엠마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깊지 않다. 탐사의 중요도를 알지 못하니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탐사대의 스벤과 연애사를 만들거나 외래종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고양이를 데려온다든지, 진지한 태도보다는 가벼운 태도로 일관한다. 그러나 엠마로 인해 이 거대한 이야기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들이 던져지고 사건화되면서 차츰 정보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에 나름의 재미를 준다.

교육용 목적에 맞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하고 싶다. 물론 이 책에 익숙해질 때까지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다. 이 책은 얇지만 한 페이지마다 너무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어 책장이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글밥도 많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심지어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웠던 생물의 이야기나 용어조차 발음하기 힘든 생물들이 등장하고, 고생대의 머나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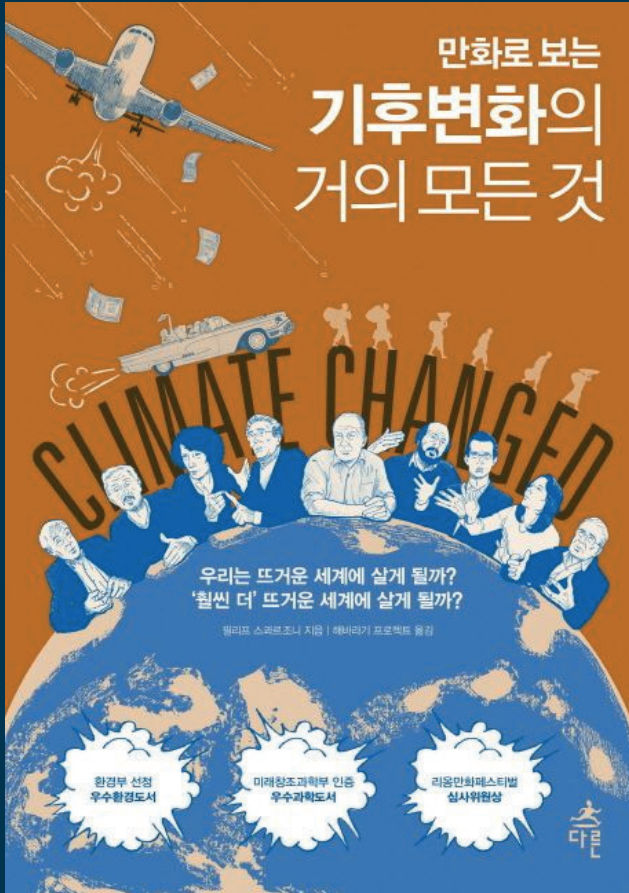
까지 흔재되어 있기에 독해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절반을 읽을 때까지도 ‘멸종’이라는 단어가 크게 와닿지 않았다.

그런데 되짚어 생각해보면 이 책은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의 몇 억 년의 역사와 여섯 번의 멸종사를 전달하는 큰 실험을 한 셈이다. 엄청난 정보량 자체를 압축해 전달하는 데 탁월한 연출적 선택들을 한 셈이다. 정보량이 많은 만큼 늘어나는 글밥과 이미지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정갈한 칸연출을 선보였다. 정형적인 칸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량에 맞춰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색채와 구도 역시 안정적이다. 눈에 띄지 않는 대신 각 페이지에서 강조하고 싶은 곳은 밝은 색으로 표현해 단조롭지 않은 연출이다. 그로 인해 가상의 섬을 배경으로 사라진 무수한 생물과 현재 사라지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사례들이 옹골차게 전달된다.

이러한 연출들은 이 책의 절반 분량인 대여섯번째 챕터쯤 지나면 어느새 나의 이야기로 전이되어 있다. 과학책에서만 보았던 종의 멸종이 2000년대 이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실제 사례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윤택한 삶을 위해 선택한 목축업, 수산업, 도로, 공장, 제철소와 정유 시설을 비롯해 늪지대와 숲을 파괴하면서까지 짓고 있는 아파트 건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기시키고 있다. 일례로 온도에 민감한 산호초가 지금의 속도라면 2050년에는 멸종을 맞이할 것이고, 이것은 해양 생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언급이 그러하다. 이 책은 한 종의 멸종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작용한다는 맥락 안에서 결국 인간의 멸종 위험까지 경고하고 있다.

더이상 관찰자로서만 머물러 있다. 지금의 속도라면 산호초가 사라질 2050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속가능한 삶,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때다. | 서은영 |

그 순간이 상상이 돼?
낙하산을 펴려고 손을 뻗는데 아무것도 잡하지 않는 현실.
얼마나 많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할 수만 있다면,' '조금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추락까지는 얼마나 걸렸을까?



© 2015, 필리프 스콰르조니 지음, 해바라기 프로젝트 옮김, 안병욱 감수, 다른

#기후문제전문가 #지구온난화 #대안에너지 #기후변화 #이상기후폭격

필리프 스퀘르조니(Philippe Squarzonni)의 <기후변화의 거의 모든 것>은 만화가 가볍고 흥미로운 장르라는 편견을 허물어 주는 만화책을 넘어서는 만화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화가는 이 텍스트를 집필할 당시 당대 전문가들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수렴해, 에세이나 연구서가 아닌 만화의 형식으로 동시대의 기후위기 문제에 전문성을 입혔다.

저자는 어떤 장르보다도 빠르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만화의 전달성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대한 자신과 전문가들의 우려를 정성껏 텍스트에 응축해냈다. 여기서 '잘' 응축했다고 하지 않고 '정성껏' 응축했다고 적은 것은 일반 대중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만화의 형식으로 친절하게 갈무리해 그 누가 읽어도 기후위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책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으나, 이런 이유로 기후위기에 위기의식이 있는 개인 독자나 모임 단체는 이 텍스트를 교재로 활용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총 6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텍스트를 한 주에 한 장씩 천천히 느리게 탐닉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측면의 기후위기 원인을 직면할 수 있으니 그렇다. 그래서 필자가 '정성껏' 자신의 의도를 표현했다고 적은 것이다. 하지만 이 텍스트의 장점은 전문가의 의견을 잘 갈무리한 것에만 있지 않다. 만약, 이런 정보 전달 내용만이 채워졌다면 <기후변화의 거의 모든 것>(2015)은 온전한 작품으로서 가치를 부여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필리프 스퀘르조니는 여러 명의 기후위기 전문가들의 입장을 책으로 묶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숨겨놓는다.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과 이 입장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고 있는 저자의 불안 을 동시에 담아 놓은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저자가 기후위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결론 자체다. 기후위기는 멈출 수 없는 것으로, 곧 다가올 재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인류가 노력하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보다는 아무리 노력해도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근대화의 결과로 인해 재앙은 받아들여져야 하는 숙명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인류는 생각 없이 지구의 에너지를 광기의 태도로 소비했고, 이에 대한 벌(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인간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알려주는 불편한 텍스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자에게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 비록 시원스럽게 대답은 못하더라도, 질문을 한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을 위한 고민이 앞날을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내가 틀렸는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479)

그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후위기에 대해 침묵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예술가는 예술가의 방식으로, 정치인은 정치인의 방식으로, 사업가는 사업가의 방식으로, 교육자는 교육자의 방식으로, 한 명의 개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질문'할 때, 불안한 운명을 되돌릴 수도 있다고 믿는다. 이 믿음이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희망적인 불꽃이다. 그러면 저자의 말처럼, 정해진 지구의 운명이 '틀린'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텍스트는 이처럼 냉정하고 날카롭게 동시대의 '불안' 중에 하나인 기후위기에 대해 질문한다. 이제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질문할 차례다! | 문종필 |

모든 동물의 심장 박동은 지문처럼 저마다 다르다.



© 2023, 조나단 케이스 지음, 조은영 옮김, 원더박스

#제왕나비 #99.9%멸종 #서식지보호 #두여성의모험 #꿀생존팁

북미 대륙에 사는 제왕나비는 3~4세대에 걸쳐 수천 킬로미터 북쪽으로 이동한다. 멕시코에서 따뜻한 겨울을 난 제왕나비는 수명이 아주 긴 슈퍼 제왕나비가 되어 한 세대 만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다. 곤충의 세계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오직 제왕나비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북미 나비의 대표 선수였던 제왕나비는 인간의 생태계 파괴로 인해 살 곳을 잃고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미국 서부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99.98%의 제왕나비가 사라졌다. 지구 생태계를 이루는 작은 심장 하나가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것이다.

<멸망한 세계에서 우리가 나비를 쫓는 이유>는 태양 이상으로 인한 일광병으로 99.9%의 인간이 사라진 2101년의 지구라는 가상의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낮의 태양광 아래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제왕나비 날개의 비늘로 백신을 개발하는 과학자 플로라와 그의 어린 파트너 엘비의 모험과 생존기가 담겨 있다. 이 작품에서 99.9%의 인류가 사라진 미래라는 설정은, 99.9%의 제왕나비가 북미 대륙에서 사라진 현실과 닮음을 이루며, 인류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제왕나비와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던진다. 또한 멸종 위기의 인류가 멸종 위기의 제왕나비 비늘로 백신을 만든다는 설정은 공생하는 생태계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종의 다양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대변한다.

이 작품의 작가 조나단 케이스는 <그린 리버 킬러(Green River Killer)>로 아이스너상을 수상했으며, 자신을 '사랑하는 함께 모험을 좋아하는 만화가'로 소개하고 있다. 모험을 좋아하는 작가답게 이 작품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플로라와 엘비의 이동 좌표와 방위를 꼼꼼히 기록해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만일 독자들이 실제 좌표를 따라 그 장소에 찾아가면, 작품에 묘사된 지역의 풍경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다양한 생존 기술 팁들이 엘비가 기록한 일기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주위 자연에 대한 탐구 일지, 뱀에게 물리지 않는 방법, 해먹 거는 법, 다양한 매듭법, 사막에서 생존하는 방법 등 상식이 되고,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꿀팁들이 담겨 있다. 조나단 케이스가 꼼꼼하게 그려낸 이러한 정보와 장치들은 서사의 리얼리티를 높일 뿐 아니라 인류의 생태계 파괴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 변하지 않고 이대로 살다가는 결국 우리 종도 멸망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는.

미국에서 발행된 이 책의 에디션에는 제왕나비 애벌레가 먹고사는 식물, 밀크위드의 씨앗이 동봉되어 판매되었다. 책을 구입하는 독자들이 멸종해 가고 있는 제왕나비들을 위해 직접 밀크위드 씨앗을 심는 환경 캠페인을 제안한 것이다. 독자들을 작품을 감상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상호작용하는 능동적 주체로서 호명한 점은, 일상의 독서-환경 운동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 같다.

이 작품의 '제왕나비'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생명들의 함유이다. 자연적 도태가 아닌 인류가 만든 인위적 멸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제왕나비와 같이 지구상 곳곳의 야생동물과 야생식물들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다양한 생물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보호종'이라는 귀한 이 름표를 달고 사라져 가는 중이다. 제왕나비를 위한 밀크위드 씨앗을 심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의 작은 실천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 김성진 |

어찌지? 숨을 안 쉬고는 살 수 없잖아!



© 2014, 달콤팩토리 글, 한형동 그림, 윤순창 감수, 미래엔아이세움

#미세먼지#살아남기#스모그#황사#대기오염#모래폭풍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을 환영한다. 그런데 그 책이 만화책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두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만화책을 읽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만화책만 하루 종일 붙들고 읽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만화만 읽어도 괜찮을지 내심 걱정 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부모가 타협하는 것이 학습만화이다.

학습만화는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만화로 다루어 어린이도 해당 분야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학습만화가 가진 부정적인 측면도 여전히 존재한다. 만화책만 읽다보면 독서 편식이 심해질 수 있다. 그 결과 만화가 아니면 아예 책을 안 보려고 하는 어린이도 생겨난다. 폭력적인 장면을 담은 만화는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책이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부모가 일일이 읽어보기 전에는 안심하기 어렵다. 어린이 공연을 관람할 때 비슷한 경험을 한다. 어린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연극인데 막상 내용은 그다지 교육적이지 않아 실망한 적도 종종 있다.

그런 면에서 학습만화 중 ‘살아남기’ 시리즈나 ‘WHY’ 시리즈는 만화로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어 어린이에게 추천할 만하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만화로는 <미세먼지에서 살아남기>를 추천한다. 주인공이 미세먼지가 심한 나라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지오와 피피는 비행 중에 예상치 못한 모래 폭풍을 만나 중동의 낯선 도시에 불시착한다. 모래폭풍이 지나간 뒤 재앙 수준의 스모그가 도시를 가득 채운다. 지오와 피피는 스모그에 갇힌 도시를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만화 중간에 미세먼지, 황사, 역사 속 대기오염 사건들 등 다양한 과학 상식을 소개하여 어린이들도 쉽게 과학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전문가 감수 역시 만화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한몫한다.

이 책의 아쉬운 점이라면 과학적 지식을 만화로 담아내다 보니 만화 자체의 서사는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살아남기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서사를 진행한다. 주인공이 해당 내용의 낯선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이야기다. <미세먼지에서 살아남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스모그를 극복하기 위해 닥터 디의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발명품을 통해서 어떻게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이제 막 사용하는 장면에서 결말을 맞이하여 열린 결말도 아닌 어정쩡한 결말로 이야기를

마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만화가 가진 장점이 앞서 설명한 단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만화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가 읽어도 좋지만 미세먼지를 알고 싶어하는 어른에게도 관련 분야 입문서로 충분히 좋다.

마지막으로 학습만화를 읽을 때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겠다. 책을 읽은 뒤 새롭게 알게 된 점 두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생활 태도가 무엇인지 부모와 대화를 나눈다. 과학적인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 리뷰를 읽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이번 주말에 자녀와 함께 <미세먼지에서 살아남기>를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 최기현 |

그 옛날, 조화롭게 살았던 시절로 우리는 돌아가야 해.



© 2020, 케이티 오닐 지음, 심연희 옮김, 보물창고

#해양오염 #자연과인간의공존 #씨스피라시 #산호는동물 #서양의웅궁

바닷속 산호의 죽음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지난 70여 년간 온난화와 해양 오염으로 인해 지구에 살던 산호의 절반이 사라졌다. 산호와 함께 산호를 기반으로 살아가던 바다 생물들도 역시 사라졌다. 인간은 이들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인류는 지구 생태계의 연쇄적인 죽음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바닷속 유니콘 마을〉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어부 메이, 바닷속 마을에 살고 있는 요정 아우레, 폭풍우 치는 바다에 엄마를 잃은 라나를 주인공으로 자연과 인간의 갈등, 공존에 대한 모색을 그린 작품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어부 메이와 요정 아우레는 각각 인간과 자연을 대변하고 있다. 바다의 너무 많은 것을 착취해 간다고 주장하는 아우레, 마을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 대대로 이어온 어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메이. 둘 다 바다를 사랑하지만 서로가 바다를 사랑하는 방식은 다르다.

메이는 드넓은 바다에서 자신이 얻어가는 것은 아주 일부일 뿐이고, 망가지는 바다가 자기 탓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메이의 주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인류가 가졌던 보편적인 생각을 대변한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취했을 뿐. 내 행위로 인해 이렇게 거대한 자연이 망가질리는 없으리라 생각했다. 메이는 어느 날 태풍으로 파도가 범람하여 마을이 큰 피해를 입게 되자, 플라스틱 그물을 사용하는 어업과 산호초의 죽음, 태풍으로 인한 파도의 범람이 모두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마을을 덮친 재앙은 자신의 과오가 다시 되돌아온 것이었다.

이 작품에서 메이는 플라스틱 그물을 증조할머니가 알려준 전통 방식의 그물로 바꾸고, 바다의 자원을 필요한 만큼만 얻었던 옛 방식으로 회귀하겠다고 결심한다. 자급자족했던 옛 생활로의 복귀 선언이다. 과연 메이가 선택한 자급자족적 방식이 답이 될 수 있을까? 산업화된 현대사회가 과거의 생활방식으로 회귀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고개를 치켜든다. 우리는 쉽고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자급자족은 이러한 욕망과 편리함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달콤한 욕망과 편리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

〈바닷속 유니콘 마을〉의 작가 케이티 오닐은 뉴질랜드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아이스너 상, 하비 상 드웨인 맥더피 상을 수상했으며, 자연과 모든 종류의 생물, 마음 챙김과 정신건강, 일상생활의 마법에 관심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케이티 오닐의 작품들은 성소수자, 성평등,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주제들을 밝고 아름다운 컬러와 상상력이 넘치는 스토리로 표현한다. 판타지 동화같은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동시대의 사회적 화두들이 담겨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메이는 쿼어 커플이고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여성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환경문제뿐만이 아닌 여성주의 관점으로도 읽을 수 있다. 다양성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 케이티 오닐의 작품들은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으며 토론하기에 최적화된 작품이다. 좋은 독서 토론의 매개물로 권하는 바이다. | 김성진 |

“아직도 더 죽여야 하나요? 또 다시 대지를 독으로 더럽히고 싶은가요?
부해는 우리의 업보입니다. 하지만 적은 아닙니다. 증오와 복수는 아무 것도 낳지 않아요.
증오가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미움보다 우애를”
“자 다들 출발해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살아야 하니까...”



© 2010, 미야자키 하야오 지음, 학산문화사

#애니판아님 #더_깊고_광활한_이야기 #살아라 #인간도_자연의_일부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이하 〈나우시카〉)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감독한 스튜디오 지브리(이하 '지브리')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작품이지만, 실제로는 지브리가 설립되기 전에 제작된 작품이자 지브리의 실질적 원점이 된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만화판'이 있다. 그것도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이 직접 그린 만화다.

사실상의 원작인 이 만화는 애니메이션판이 공개된 1984년보다 두 해 전부터 토쿠마쇼텐(徳間書店)의 애니메이션 정보지 《아니메쥬》에 부정기적으로 실려 총 7권 분량으로 완결되었다. 한 작품에 이만큼의 시간이 흐른 건 애니메이션 〈나우시카〉의 공개 이후 스튜디오 지브리가 설립되고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마녀 배달부 키키(마녀의 태극편)〉 〈붉은 돼지〉를 연이어 제작하는 와중에 짬짬이 그린 탓이다. 심지어 그 기간 중 지브리의 또 다른 주축이었던 타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추억은 방울방울〉에서는 제작과 프로듀서를, 〈헤이세이 너구리 대작전 품포코〉에서는 기획까지 맡았다.

만화판 〈나우시카〉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기획안을 본 토쿠마쇼텐의 일원이 원작도 없지 않느냐며 사실상 퇴짜를 놓자 《아니메쥬》 기자이자 이후 지브리의 핵심 일원이 되는 스즈키 토시오 프로듀서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에게 그럼 원작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웃지 못할 뒷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시작된 만화판이 정작 애니 발표 이후에 만화판으로 일곱 권, 헛수로 총 12년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걸린 시간만큼이나 양쪽의 내용도 많이 다르다.

애니메이션판이 정해진 시간 안에 압축된 주제와 좁혀진 무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위한 명확히 흑백에 가까운 대립 구도를 보여준다면 만화판은 훨씬 입체적이고 큰 스케일을 보여준다. 애니메이션판에서는 독기를 뿜어내는 숲으로 말미암아 인류 문명이 쇠퇴한 세상을 무대로 일단 인간이 나쁘고 자연은 선이라는 구도를 그려낸다면, 만화판은 전쟁이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인 패권 행사도 아니거니와, 작중에서 인간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벌레나 오염 물질이 있는 곳에서 자라나는 군사의 숲인 부해를 비롯한 모든 것이 결국 과거의 인간들이 만들어낸 산물들임을 나우시카가 깨닫는 형태로 묘사한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내고만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 위에서 오염 상황을 모두 일소하고 행복하게 '해결'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작중에서 부해와 곤충은 과거의 인간이 오염을

정화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고, 현재 생존 중인 인간은 오히려 독소가 모두 제거된 후엔 살 수 없는 개조체였다는 아이러니한 설정이 기다린다. 결국 지금의 인간은 오염된 곳에서 살 수 있고, 옛 사람들이 구상한 정화는 결국 오염에 적응한 현생 인류가 사라져야 완성된다. 나우시카는 이 디스토피아스러운 유토피아를 거부하고 옛 사람들의 구상이 집약된 생체 컴퓨터 히드라를 없앤다.

이에 따라 당장의 완전한 정화는 불가능해졌지만, 나우시카는 오히려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살아갈 것을 주문한다. 중요한 건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없애면 모든 게 해결되리라 믿는, 또 그걸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단번에 해결되는 백만 탄 초인 엔딩을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벌어진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화판의 나우시카는 단순히 자연 편에서 자연을 해치는 인간 편을 주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역설한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 대목에서 '초기화'를 들이밀어 놓고는, 이 달콤해 보이기까지 하는 유혹을 주인공을 이용해 확실하게 끊었다. 작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망가뜨렸으면, 그 망가진 위에서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업보라면 업보를 감당하고서라도,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형태로, 그러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라도 "살아라". <모노노케 히메> 등으로 이어지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대주제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기후 위기를 자초한 만화책 바깥의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이야기다. 살라는 소리는 결국 단순히 "죽지 말라"는 소리만이 아니다. 인류도 자연의 일부다. '우리라는 자연'이 '살기' 위해선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화판 <나우시카>는 그 지점을 집요하고 장대하며, 그리고 준엄하게 묻고 있다.

마지막으로 만화판의 만화적 특징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자. 애니메이션이 무조건 만화도 잘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만화판 <나우시카>는 상당히 큰 판형 안에 매우 밀도 높게 배치한 칸들과 별다른 잔 기교를 부리지 않은 정직한 그래픽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근래의 만화와 비교하자면 답답할 순 있지만 198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볼만하다. | 서찬휘 |

어디에나 흔히 있을 법한 마을이지만…,
어디를 가든 똑같은 마을이란 없어. 그 폭포도…강도, 다리도 여기밖에 없다구.



© 2011, 우루시바라 유키 지음, 오경화 옮김, 대원씨아이

#수물 #이분법적세계관 #잃어버린고향 #본질회복 #근원적마음 #하이데거 #시적거주

인간과 자연을 따로 떨어진 별개의 존재로 보는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자연환경은 도구적 존재이며, 지배와 종속의 대상이다. 인간의 편리와 효율을 위해 착취의 대상이 된 자연은 자신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잃고 식민지의 처지로 전락하고 만다.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의 책 제목처럼 인간은 “지구의 정복자”가 되었다.

그런데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하이데거의 지적처럼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세계와의 연관성을 상실한 인간은 인간 본질의, 도덕적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 무게를 잃었다. 자연과 분리되어 걸어진 길의 끝에서 인간은 자연을 일부 지배하게 되었지만, 세계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환경 위기는 현대 기술문명에 대한 전면적 성찰을 요구하는 커다란 실존적 위기다.

만화 <총사>의 작가로 친숙한 우루시바라 유키의 작품 <수역>은 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잃어버린 근원적인 마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욕망을 상징하는 댐 안에 가둔 물이 이상기후로 인한 흑서와 가뭄으로 바닥을 보일 때, 물에 잠겨있었던 미야마 마을이 다시 드러난다. 물 부족으로 수영장을 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수영부원인 주인공 치나미는 육상훈련 끝에 의식을 잃고, 맑은 물이 흐르며 비가 그치지 않는, 낯익은 강가 마을의 꿈을 꾸다. 치나미는 꿈과 현실을 오가고, 만화는 치나미 엄마의 가족이 대대로 살아온,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던 미야마 마을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자연의 신비와 영성, 그것과 어울려 살아온 삶의 기억을 수면 위로 끄집어낸다. 그것은 개별 논리에 희생당해 떠나온 고향의 “시간이 지나도 정리되지 않고, 양금처럼 가라앉는 이야기”와 맞닿아있다.

작가는 독자의 마음이 표지의 수채화처럼, 작품에 묘사된 물에 비친 달처럼 물에 젖은 수역이 되어갈 때, 상처가 치유된 미야마 마을의 사람들 같은 느낌을 갖게 되길 원하였을까. <수역>은 잃어버린 고향, 상실했던 근원적인 마음을 회복하는 정서적 고향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느 틈에 놓친 자연의 존재와 삶의 본질에

대해 성찰케 하고 있다.

물에 잠겨있던 것들이 어느 날 떠오를 때, 비로소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지금도 할머니의 가슴 저변에는 물에 잠긴 그 마을이 있고…, 그것은 이맘때 즈음…, 종종 수면 위로 나타난다. 아마도 그건…, 엄마한테도…, 할아버지 안에도 있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여름 이후…, 내 안에도 생겨났다. 깊고 깊은 밑바닥에…, 텅그러니 지금은 더 이상 없는 장소를 머금은…, 수역(水域).”

| 송하원 |

1만 년 전, 나는 이 밤하늘을 보고 있었다.



© 2021, 시카와 유키 지음, 김동욱 옮김, 문학동네

#지구가사라진다해도 #영원한세계 #무한과유한 #우리는어디로가는가

어쩌면 이렇게 단순한 그림체로 이렇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까. 뼈를 마이크 삼아 랩을 하는, 1만 년 이상 살아온 소녀가 등장하는 첫 페이지부터 심상치 않다. 밤하늘의 별이 동심원으로 그려질 정도로 시간이 흐르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인다. 상어에게 잡아먹힌다. 수없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상어는 죽기 마련. 쏟아진 내장 사이에 누워 있던 소녀는 좀 피곤해 보이지만 일어난다. 파이는 불멸인 것이다. 엄마와 소년 마키도 마찬가지. 엄마가 등장하고 소년과 소녀가 등장한다고 해서 로맨스 같은 걸 기대하지 말기를.

이들은 엄마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자신들만이 “유한한 생명의 죽음과 교미를 통한 재생산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완전히 배제된, 단지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들은 추락하는 우주선에서 탈출한 만삭의 인간이 아이를 출산하는 걸 돕고, 그녀가 사망하자 갓난아이 ‘미라’를 키우기로 결심한다. 1만 년 만에 불멸과 필멸의 인간들이 만나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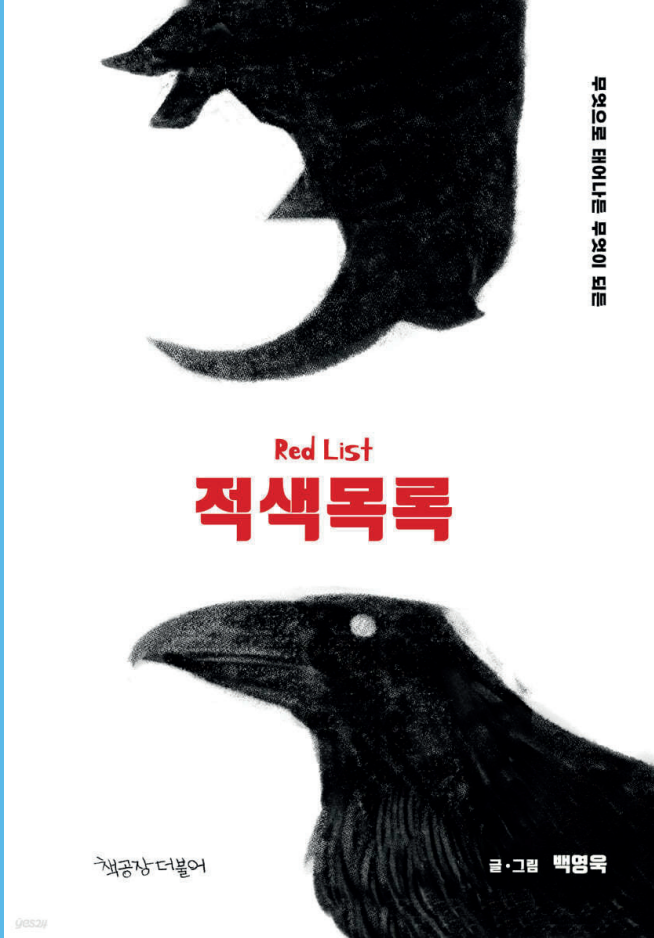
미라, 원래 생모가 찼던 ‘미래’라는 이름의 그녀는 파이와 마키는 그대로이고 자신만 훌쩍 커버리자 자신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모든 순간이 소중한다고 생각할 만큼 현명하게 성장한다. 불행히도 이 별은 인간의 삶을 10년밖에 유지시켜주지 못한다. ‘영원히 사는 것’과, ‘급속히 늙어가는 것’, 무엇이 더 불행할까 물어보자, 마키는 서로가 함께 존재하는 한 모두가 불행하지 않다고 대답한다. 죽을 수 있다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영원한 시간이 있어도 소중한 존재를 잃을 준비 따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이 아닐까. 어차피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소중한 존재를 잃고 나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다는 걸,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함께 존재했던 기억으로 충만해지기 마련이라는 걸 알려준다. 그렇다면 유한한 존재인 미라만이 아니라 무한한 존재인 이들 모두도 인간인 것이 아닐까.

이 작품은 파이의 변화를 중심으로 읽어내도 좋다. 자신이 인간이고 그러니 곧 죽을 거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미라에게 눈물을 참으며 웃어주려고 애쓰는 파이는 더 이상 무한한 원주율 숫자를 쓰며 시간을

허비하던 어린 소녀가 아니다. 이제 그녀는 하고 싶은 일을 향해 우주선을 탄다. 그 결과가 비록 무한의 삶을 유한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라도. 1만 년 동안 업두를 못 냈던 일을, 10년간의 미래와의 시간을 통해 꿈꾸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이다. 지내왔던 세월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기간이었지만 얼마나 결정적인 만남인가. 살아가며 이런 빛나는 만남을 기대하고 실현할 수 있다면 부러워할 만한 일이 아닐까.

종종 등장하는 예술품에 대한 묘사는 덤이다. 엄마는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LC2(1928) 의자에 앉아 고갱의 작품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1897)가 닳아 없어지는 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다. 마키가 데즈카 오사무의 <불새>(1954~1980)를 읽는 장면도 나온다. 인간들이 영망으로 오염시키고 떠난 곳에, 죽지 않는 존재들만이 남아 인간의 예술품을 향유하다니. 인간들이 모두 사라져도 예술품은 남는다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의 모든 산물 중 예술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일까. 적어도 예술품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데 기여할 리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만화책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 | 한상정 |

그저 재미로 목숨을 앗아가잖아.



© 2023, 백영욱 지음, 책공장더불어

#적색목록 #RedList #트로피사냥 #죽어간동물을위한만가 #우리의지구

<적색목록>의 한 장면. 머리가 달린 에조늑대의 가족들이 빨래줄에 끝없이 널려 있고, 어미를 잃은 어린 늑대는 바람에 너풀거리는 엄마의 가족을 보고 울고 있다. 늑대 중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며 훗카이도 산야를 뛰어다니던 에조늑대는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사냥으로 인해 1900년대에 완전히 멸종되었다.

또 하나의 장면. 188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의 미시간 카본공장 야적장에 쌓아 놓은 버펄로 머리뼈 더미 사진. 높이 9m, 길이 수십m에 달하는 이 머리뼈 더미 앞에 한 남자가 자랑스러운 듯 포즈를 취하고 있다. 드넓은 아메리카 초원에서 살았던 미국의 버펄로(Bison)들은 단지 사냥의 재미를 위해, 가족을 얻기 위해,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무참히 학살되었다. 5000만 마리 이상의 버펄로들이 살고 있던 미 대륙에서 이들이 사라진 것은 단 수십 년에 불과했다. 1890년대 초엔 단 500여 마리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백영옥 작가의 <적색목록>은 인간에 의해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는 야생동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인 '적색목록(Red List)'은 생물 종의 멸종위험에 관한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국제적인 지표로, IUCN에서는 지구상의 식물과 동물을 '절멸'에서 '미평가'까지 총 9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한 리스트를 말한다.

<적색목록>은 어릴 적 사냥꾼에게 엄마를 잃고 야생동물 보호소에서 살았던 코뿔소 코쿠모와 인간들의 뿔사냥으로 죽음의 목전에 이른 코쿠모의 살점을 뜯어먹던 까마귀 치크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 둘은 전생에서 수많은 동물들로 태어났지만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해왔다. 코쿠모와 치크의 전생의 육신-배틀랜즈큰뿔야생양, 도도새, 에조늑대, 베가스표범개구리, 큰바다쇠오리, 스텔러바다소, 여행비둘기, 나그네알바트로스, 보르네오오랑우탄-은 이제는 멸종된, 또 다른 그들의 이름이다.

<적색목록>은 어둡고 무겁다. 흑백의 묵탄 질감의 그림은 불안과 답답함이 배어있다. 작품 전반의 연출은 마치 심연의 필름을 재생하는듯한 비장함마저 안겨준다. 이 작품은 인간의 잘못을 예들러서 표현하지

않는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간들은 이기심으로 가득한 야생동물 학살자이다. 자신의 재미와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생명들을 무자비하게 해치는 존재들. 독기 가득한 야만적 인간들. 이렇게 그려진 인간의 모습에 독자들은 반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작품을 읽다 보면 그러한 모습이 자연을 마음껏 착취하고 있는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백영욱 작가는 <적색목록>에서 최대한 동물의 시선으로 서술하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그가 공감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고통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도 그대로 전해온다. <적색목록>은 작품 서두에 밝힌 것처럼 '멸종의 고통을 기록하고, 희미해지는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작업이다.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는 야생동물들을 애도하기 위한 만가(輓歌)다.

인간이 학살하는 것은 비단 야생동물뿐만이 아니다. 심심치 않게 뉴스에선 동물 전염병 소식과 함께 물살당하는 가축들의 소식을 전한다. 이들은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다. 병들어 인간에게 해가 될까 봐 미리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는 살아있는 '음식들의 죽음'에 안타깝지만 귀를 닫고 눈을 감는다. <적색목록>은 이렇게 합리화 해 온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다. 저 야만적인 인간의 모습 역시 나왔음을.

| 김성진 |

나는 이 세상을 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구 위 작은 한구석에서, 삶은 괜찮게 굴러간다.



© 2022, 시몽 위로 지음, 한지우 옮김, 김영사

#정원가꾸기#생태계복원#일러스트만화#곤충도감#동물이찾아와요

만화를 소개하기 앞서 잠깐 나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몇 년 전 작은 정원이 딸린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은 정원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마치 밀림처럼 방치된 정원에는 온갖 잡초가 뻗뻗하게 차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 모기와 사투를 벌이며 수일에 걸쳐 풀과 잡초를 모두 정리했다. 정원석을 배치하여 예쁘게 화단을 만들고 주말마다 화원에서 예쁜 꽃과 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다. 그리고 이내 작지만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다. 정원은 도심 속 자연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되었다.

프랑스 작가 시몽 위로의 만화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는 지구의 생태 위기를 인지한 주인공이 정원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여 오랫동안 방치된 정원을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작품이다. 이 만화를 읽으면서 위에서 소개한, 몇 년 전 정원을 만들었던 나의 경험이 오버랩 되었다. 주인공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처리한다. 정원의 한쪽을 차지한 오래된 홍자단 덩굴을 치우고 길에서 발견한 식물과 버려진 붓꽃, 물옥잠을 가져다 심는다. 공간이 하나둘 채워지면서 말벌이 포도 몇 알을 먹으러 오는가 하면 오리, 뉴트리아 같은 동물, 까치와 찌르레기, 여러 곤충이 자기 밭로 정원을 방문한다. 물론 해충과 같이 불청객은 전혀 반갑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원을 이루는 하나의 자연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색연필로 그린 일러스트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모습을 부드럽게 표현했다. 마치 식물도감이나 곤충도감처럼 정원에 심은 식물, 정원에 찾아온 새와 곤충을 자세하게 그렸다. 여기에 부가적인 정보를 붙여 읽을 거리도 더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일반적인 나비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나비의 학명과 함께 산호랑나비, 쇠기풀나비, 붉은제독나비, 작은 멋쟁이 나비, 산네발나비, 악마 로베르, 그을린 나비, 뱀눈 나비 등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그린 식이다. 평소에 관심도 없었고 만날 일도 없었을 나비를 일러스트로 만나는 것은 과학책에서 사진으로만 접했던 나비와 또 다른 느낌이다.

작가는 만화를 통해 자연 생태계가 단시간에 똑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 아주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여타 만화처럼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전개되지는 않지만 주인공이 시시각각 맞닥뜨리는 문제를 시행착오와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해결하며 정원은 잔잔하게

변화해간다. 해충이 생기면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해충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식물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친환경 해충약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자연과 공존할지 고민하는 식이다.

이 책을 덮으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정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연과의 공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개입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또다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어느 한 공간에 살아가는 식물이 인간에 의해 강제로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생태계의 균형을 깨는 행위 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일정한 폭력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지구가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색연필로 칠한 일러스트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버킷리스트에 정원만들기가 있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 최기현 |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
...지구가 아닌 인간이 멸망하는 겁니다.



© 2022, 하루치 지음, 판미동

#공생 #도시생활자 #산책자 #채식부적응자 #길냥이

어렸을 때부터 “정육점에 시집가야겠네”라는 말을 줄곧 들어왔을 만큼 육식을 메인으로 했던 나로서는 ‘채식’은 나를 부정당하는 단어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필시 DNA로도 각인되었다고 확신할 만큼 육식만 선호했던 내게 채식은 내 삶 전체를 부정당하고 나 자체를 통째로 바꾸라는 강요처럼 느껴지니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마음에 들었다. 아무리 육식을 선호한다 해도 인간이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에 주범이 되어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문제의식 짙은 자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를 자각하는 것과 그로부터 실천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니, 그래서 인간은 괴롭다. 문제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니 말이다.

하루치 작가의 <지구를 위해 모두가 채식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모순적이고 나약한 나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작은 실천들을 하고 있고, 또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준다. 작가는 지구를 위하는 일이 거대하고 힘든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니, 굳이 그걸 말하지도 않는다. 작가는 소소한 일상을 살 뿐이다. 이 책은 연남동에 사는 한 개인이 산책자로서 연남동을 소개하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하나의 삶의 방식을 보여줄 뿐이다. 다만 그의 삶이 나오는 다르게 지구의 환경을 조금 더 고민하고, 다른 종과의 공존과 공생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았다는 정도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그의 고민과 나의 고민이 맞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교감이 편안하게 다가왔다는 점이 이 책이 가지는 힘이다. 독자인 나는 그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가끔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주춤하게 됐다. 배달음식을 먹은 후 플라스틱 용기를 처리하는 일이나 채소를 다듬을 때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살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는 일이다. 또 장바구니를 들고도 매번 검정비닐봉지를 받던 나를 반성했다. 여전히 나는 육식을 선호하지만 지구를 위해 모두가 채식하기가 어렵다면 그만큼의 실천을 다른 부분에서라도 만회하는 것으로 실천하고 있다.

환경을 지키는 작은 다짐에는 공생도 있다. 저자는 거대한 창이 3개인데다 서향이라 여름에 덥고 겨울엔 추운 집을 계약했다. 그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반려묘 피콕이었다. 피콕이 살아가는 동안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자의 생활을 바꿨다. 부동산 광풍에 혈안이 되어있는 인간의 잣대로만 바라보면 손해지만, 저자에게 피콕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위로이기에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사람종과 고양이 종이 각자 종의 특성을 인정하며 공생의 삶을 도모할 때 그것도 인간이 지구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는 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우주에서 지구,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중에서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지붕”을 생각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부유하는 면지보다 작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런 미세한 먼지의 날개짓이 지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한다. 저자의 말처럼 지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종의 자멸을 막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한다. 어떤 실천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지구를 위해 모두가 채식할 수는 없지만>을 권한다. 부담없고 편안하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과 다짐들을 안내해줄 것이다. 나는 오늘도 텀블러를 들고 집을 나선다. 그리고 우리동네 길냥이들에게 안부를 전할 것이다. 오늘도 함께 잘 살아보자고. | 서은영 |

이 모든 색의 향연이 타오르는 듯 강렬하게 보였다.
주위의 모든 것들이 고요하게 호흡했다. 관능이 살아 숨쉰다...
하지만 여기는 체르노빌이 아닌가!



© 2012, 엠마누엘 르파주 지음, 해바라기 프로젝트 옮김, 길찾기

#22년만의_소환 #역사_아닌_현재 #후쿠시마_원전 #우리_일

기억 저편으로 밀어놓았던 체르노빌이라는 이름을 다시 꺼내게 된 건 아무래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이다.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원전 사고를 맞닥뜨리는 그 순간, 모두가 알았다. “이게 체르노빌이다” 다만 역사의 한 페이지인 줄 알았던 체르노빌이 바로 옆이 됐고, 그 옆의 전방위적인 책임 방기 덕에 재난이 전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빠졌을 뿐이다.

〈체르노빌의 봄〉이라는 르포 만화는 절묘하게도 바로 이 동일본 대지진이 터진 2011년의 이듬해에 출간되었으며, 또 그 이듬해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엠마누엘 르파주 작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작품을 그리기 위해 취재한 것이 아님에도 출간 시기로 말미암아 강한 시사성을 띠는 작품이 되었다.

그런데 〈체르노빌의 봄〉은 원전을 취재한 르포 만화면서 반핵 메시지를 초지일관 외치는 작품이 아니다. 중요한 건 제목이 보여주는 형용모순이다. 작가 르파주는 출발 전 사방의 만류와 두려움이 겹쳐 손 근처에 이상이 생길 만큼 힘겨워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마음으로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한 지 22년째 되던 날에 사고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들어간다.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럴 수 있는 목탄 따위 가벼운 도구를 들고 들어갔지만, 막상 현지에 이르러 사람들과 공간을 만난 르파주의 손은 어느덧 자유로이 풀렸다. 그런 르파주의 손에서 나온 그림은 방사능이 지배하는 현장을 고발하기 위한 지옥도의 묘사가 아니다. 재난의 여파를 고스란히 안은 그 공간 안에서도 숲은 자라고 사람도 산다. 체르노빌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길 없는 재난 그 자체의 대명사가 됐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들이 있고, 또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며, 절망한 채로도 웃음을 지으며 살아간다 - 작가 르파주는 바로 그 자체로 고통을 증거한 채 살아가는 생명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안은 채 담아낸다. 그래서 이 작품은 반핵 운동 만화도 아니지만 방사능을 극복한 사람들의 체현 수기도 아니다. 체르노빌은 시간 속에서 지독한 양가적 상황이 고스란히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다. 〈체르노빌의 봄〉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듯, 이 양가적 상황이 비추는 바를, 르파주 작가는 ‘모노톤으로 묘사한 장면’과 ‘압도적인 색채를 다채로운 회화 양식으로 표현한 장면’으로 대비해 보여준다. 하지만 이 수려한 그래픽이 단순히 다큐멘터리처럼 나열되지만 했다면 굳이 만화여야 할 이유는 없을 터다. 르파주 작가는 큰 판형을 심부 활용해 풍경과 인물의 표정으로 자신이 느꼈을 감정의 폭을 널따랗게 보여준다.

흔히 르포 만화가 내용과 주제에 객관적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그래픽 면에서는 화자로서의 '나'가 감정적으로 부풀려지지 않게 담아내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 <체르노빌의 봄>은 시종일관 본인의 감정 크기를 드러낸다. 때론 그 시야에 담긴 감정의 크기가 펼침장(전장)을 꽉 채우는 형태로 등장하곤 한다. 그림 참 잘 그렸다는 심정이 드는 대목들이 많지만, 그 때문에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작가가 손 근육이 굳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가서 확인하자는 심정으로 길을 나섰던 그 마음 자체다. 작가는 보이지 않는 죽음과 보이는 생명이 공존하는 이 공간의 현재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만화판이 "(그럼에도) 살아야 한다"라면 <체르노빌의 봄>은 "그럼에도 살아 있다"다. 이쪽은 은유도 아니고 현실에서 그 고통을 그러안은 채 '그럼에도' 색채를 발하는 생명들을 보여준다. 그러니 사고를, 훼손을, 오염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일어났기에 그걸 끌어안고 살아야 하게 되니 말이다. 하지만 또 다른 체르노빌을 만들어놓고는 무엇 하나 하는 것 없이 오로지 정치로만 사안을 풀어보려 하는 일본 정부는 정말 체르노빌에서 배운 게 단 하나도 없어 보인다. 옆 나라 사람으로 분통이 터지지만, 지진이 곧잘 일어나는 쪽 해안가에 원전을 지어놓은 것도 모자라 전 정권의 저탄소 기조를 비웃듯 원전을 무탄소라고 프레임하는 윤석열 정권이 정작 세금을 써서 일본의 정치적 해결을 돕고 있는 걸 보면 한심해 어쩔 줄 모르겠다. 르파주 작가가 체르노빌에서 '봄'을 맞닥뜨렸던 것이 사고 후 22년이다. 후쿠시마의 22년 후일 2033년은 올해로 9년 정도 남았다. 덮어놓지도 못할 후쿠시마 원전과 그 주변의 '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담으로 작중에서 등장하는 지명 가운데에는 이제 익숙해진 이름이 등장한다. 바로 키예프.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이자, 벌써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어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주 무대기도 하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 정도 차를 달리면 체르노빌이 나온다. 전쟁 발발 소식에 최악의 경우가 머리에 떠오른 건 나만이 아닐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는 구 소련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자리한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했다. 전력을 끊기 위해서기도 하겠지만 만약 폭발할 때엔 체르노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지만, 체르노빌조차 현재진행형이 되고 말았다. 새삼 책장을 넘기면서 모골이 송연해진다. | 서찬휘 |

링이 아름다운 건 창문뒀이가 창을 닦기 때문이죠. 저는 창문뒀이입니다.



© 2008, 이와오카 히사에 지음, 오지은/박지선/송치민 옮김, 세미콜론 | 전7권 |

#지구 #인간과환경 #우주개척 #어른이된다는것 #살아가는공간의의미

뉴스에서 화성 이주에 관한 소식을 종종 듣는다. ‘제2의 지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지구를 떠나야 하는 까닭에 대해 듣는다. 우주 개척의 시대가 바로 눈 앞에 펼쳐질 듯하다. 얼마 전까지 허무맹랑한 것으로 취급받던 이야기들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작금의 기후 위기가 공상과학의 이야기를 현실에 옮겨놓고 있다.

우리는 지구를 떠날 수 있을까. 지구를 떠난다면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에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진다.

“인간은 왜 지상에서 35,000미터밖에 못 떨어졌을 거라 생각해? (중략) 분명 그보다 더 떨어진 아취웠던 거야.”

이와오키 히사에 작가의 <토성 맨션>은 지구-엄밀하게는 지상-를 떠난 인류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화성 만큼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구 대기권(성층권)에서의 삶을 통해 터전으로서 공간이 갖는 의미, 아직 아득히 멀어지지 못한 지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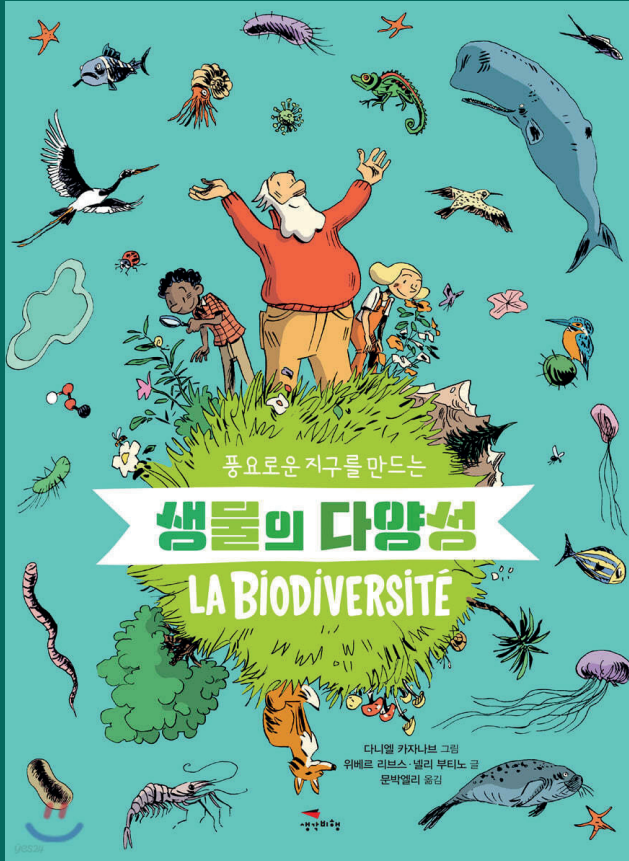
작품에서 지구 전체는 자연보호구역이 되어 출입할 수 없고, 인류는 지상 3만5천 미터 상공에서 지구를 따라 도는, 마치 토성의 고리처럼 생긴 링 시스템 맨션에서 살아간다. 거대한 원형의 구조물인 링 시스템은 상층하 3개 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부의 차이에 따라 상층과 하층에 나누어 산다. 상층과 하층의 주민은 <설국열차> 일등칸과 꼬리칸의 승객들처럼 공간적으로, 계층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꼬리칸 승객과 다르게 하층 주민은 힘써 일하는 이들의 근면과 활기, 직업의 소명과 따듯함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면하여 사는 상층주민이 비인간화된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어 있다면, 지상에 더 가까이 사는 하층 주민은 경험으로 축적되는 삶의 의미를, 불합리한 세상의 균형을 잡는 인간성을 지켜간다.

주인공 미쓰는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한 16살의 고아로, 실종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링 시스템의 외벽을

뒹고 보수하는 창문뒹이가 된다. 상·하층을 오가는 병아리 창문뒹이 미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숙련된 창문뒹이로 또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해나간다.

만화에서는 다분히 공상과학적인 공간에서 익숙한 삶의 광경이 그려진다. 거대한 '링 시스템'에서는 지구에서와 같은 사람들의 작은 일상이 펼쳐진다. 환경은 달라졌어도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고, 감정은 여전하다. 부조리한 '링' 사회의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서는 이들도 지구를 "인류의 동경, 꿈, 미래가 응축된 희망의 땅", "새로운 세계"라고 말하며 '지구 강하 계획'을 추진하지만, 평생을 살아온 '링'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다. 저마다 삶의 제 자리를 찾고 지키며 '링'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이어간다. <토성맨션>은 인간과 환경의 문제를 만화적 상상력을 통해 다루고 있다.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는 이때, 지구를 동경하는 이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해 애써 살아가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공간으로서 지구의 의미에 대해, 우리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아직은 떠나야 하는 이유보다 지켜 살아가야 하는 의미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 | 송하원 |

이거야말로 좋은 예니까요.
다리를 만드는 데 사용된 콘크리트와 강철은
먼 옛날 생물의 다양성 덕분에 존재합니다.



© 2020, 다니엘 카자나브 그림, 위베르 리브스-넬리 부티노 글, 문박엘리 율김, 생각비행

#밝음 #친근함 #자연다큐적 #인류학적 #환경선풍기 #배불뚝이할아버지

가끔 제목이 내용의 전부인 작품들을 만나게 된다. 좋은 의미로는 제목이 내용을 잘 함축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달리 보면 그 제목에서 느껴지는 인상 그대로만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겠다. <풍요로운 지구를 만드는> 생물의 다양성>은 명확히 후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 지점에 지극히 충실하게 집중해 독자들을 설득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설득’이라는 표현을 꺼내든 까닭은 이 작품이 환경과 생태에 대해 말할 때 빠지기 쉬운 몇 가지 함정들을 비교적 영리하게 비껴가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해 동원되는 표현 양식을 일컬자면, ‘뒤틀대’ ‘경각’ ‘분노’라는 인상이 떠오른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 당장 지난 2023년은 인간의 환경 파괴가 몰고 온 지구 온난화의 효과가 근 몇 수십 년 사이 안에서 가장 유감없이 발휘된 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암담하게도 상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오랜 시간 경고해왔지만 많은 이들은 들은 척도 안 해 왔다. 이젠 돌이키기 어려운 정도로 지구 환경이 나빠졌다는 경고등이 위잉위잉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곱게 말할 수 있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좋은 표정 짓기가 쉬운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작품에 그 표정을 그대로 담기 시작하면 계속 읽기는 싫어지기 일쑤다. 지독한 딜레마지만, 사람들은 본인을 가르치려 드는 태도 앞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기 마련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명색이 배우러 제 발로 들어온 학교에서조차 뺨대는 애들이 있는 마당인데 대중서 앞에선 오죽할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풍요로운 지구를 만드는> 생물의 다양성>은 일단 밝다. 아리조나산 터콰이즈 빛깔을 배경으로 간 표지도 밝고, 만화적으로 적절한 데포르메를 가한 캐릭터들의 표정도 밝다. 푸근해 보이는 인상으로 등장한 할아버지 위베르 리브스는 작자이자 화자로서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으며 생태 답사를 함께 한 아이들의 궁금증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보여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온갖 사례를 때려 박으며 이렇고 저런데 너희는 왜!를 외치지는 않는다. 다만 작중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말해준다. 우리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자연’과 ‘인공’으로 딱 잘라 구분 짓지만, 사실은 그 문물의 소재조차도 모두 생물의 다양성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임을, 결국 지금 현재를 사는 인간도 그 위에 살고 있음을 말이다.

작품의 미덕이 있다면 이 연결점을 단순화한 인물과는 달리 비교적 널따란 칸 구성 안에서 수려하고 섬세한 그래픽으로 묘사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덕분에 작품은 자연 다큐멘터리와 인류학적 저술과 배불뚝이 할아버지의 ‘썰풀기’가 공존하는 재미난 구성이 되었다. 물론 이렇게 친절하고 재밌게 이야기해준다고 인간이 말을 들을까 하는 절망감은 들지만 말이다.

이야기를 쓴 저자이자 화자인 위베르 리브스는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천체물리학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사람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고문으로 일했고, 프랑스에서 문화적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다. 뒤표지를 보며 ‘천체물리학자란 사람이 왜 환경운동을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위베르 할아버지는 첫 단락에 서부터 한 마디 던져놓는다. “별들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없을지도 몰라. 별이 죽으면서 방출하는 원자들 이야말로 모든 생명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니까” 결국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듯 지구 생태계 또한 우주의 일부임을 저자는 본인의 출연 자체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 서찬휘 |

프로젝트 후기

작년 봄, 머물던 광주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댐들의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생활용수마저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그동안 이상기후라는 유별난 더위와 추위는 대부분 이벤트처럼 지나고 말았는데, 물 부족은 다르게 와닿았다. 집에서는 생활하수를 대야마다 모아두었다가 재사용했고, 해갈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 유난이라는 타박도 있지만, 계속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계속하고 있다. 기후환경의 위기를, 인간종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집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도 있고, 저 멀리 화성에서 답을 찾는 사람도 있다. 오래된 이야기 주변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고, 이제는 딱히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였을까. ‘인간과 환경’을 이번 호의 주제로 정하였을 때, 주변에서도 모두 시의적절하다고 했었다.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도 했다. 여러 사람이 응원해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 내내 걸리는 것이 있었다. 이벤트처럼 지나가지 않게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추상적인 공감만이 아닌 구체적인 관심과 실천을 끌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을까.

후기를 쓰는 지금은 앞서 했던 걱정이 과거형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잘 이야기했을까.

부족함을 알고도 시작했고, 부족함을 여실히 깨달으며 마쳤다. 오래된 이야기를 더 오래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위안을 삼아본다. | 송하원 |

기후위기 문제는 다들 심각하다고 인식하지만 막상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이내 무감각해지기 마련이다.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지 않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우리 삶에 불편을 준다.

이번 주제의 만화를 읽으면서 든 생각은 결국 인간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지구에 살지 않

있으면 기후위기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한다. 기후위기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후위기라는 소재 외에도 자녀들이 볼 만한 만화는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했다. 두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어린이가 볼 만한 학습만화를 추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만화의 내용이 교육적인지, 혹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지는 않은지, 단순히 스토리 중심의 만화는 아닌지 등을 확인했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어린이들이 볼 만한 만화가 많지 않음을 새삼 느꼈다.

결국 기후위기 문제의 해답은 '생활 속에서 나부터 하나씩 실천하자'로 귀결된다. 기후위기라는 주제의 특성 때문에 생활 속 실천 외에 다른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주제의 구조적인 한계로 여전히 남아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전 국민,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읽을만한 기후위기 만화를 추천하는 행동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 최기현 |

어떤 연유로 내가 그린피스의 메일링 서비스를 받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날부터 메일함을 열면 한 달에 한통, 쫓으면 서너 통의 그린피스 메일이 도착해 있다. 잇을 만나면 도착하는 메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양한 생명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굶주림에 지친 어린 북극곰이 뼈가 앙상히 드러난 채 먹이를 찾아 러시아의 한 마을에 내려온 모습이나 처참한 물골을 드러내며 죽어가는 사진, 인간들이 어린 상어들을 포획해 피가 낭자한 장면, 인간탐욕에 의한 무분별한 고래잡이로 바다가 붉은 피로 물든 장면 등 인간 이외의 종들의 다양한 고통이 그 메일에 담겨있었다. 처음엔 꾸준히 메일을 클릭해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외면하게 되었다. 클릭하는 메일 수가 쌓일수록 죄책감도 함께 쌓여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한 일이 메일링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알량한

방어기제가 작동했던 것 같다. 일회용을 사용하면 설거지욕에서 벗어날 수 있고,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의 가방이 한결 가벼워 내 어깨가 덜 아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의 사소하지만 편안한 삶을 포기하기 어려웠던 내가 선택했던 일들이었다.

당장의 고달픔을 벗어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까지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과거의 내가 했던 선택들을 모두 비난하는 일 또한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분명 나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자각은 있다. 반성도 있다. 실천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지구를 함께 빌려살고 있는 다른 종의 괴로움을 외면할 수도 없다. 이러한 자성이 분명 변화를 가져올 거라 믿는다. 당장 눈에 띄는 혁신은 아니더라도 나의 조그만 변화가 며칠, 몇 년, 몇 십년 쌓인다면 북극곰 한 마리 정도는 살릴 수 있는 않을까하는 기대다.

연일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 한다.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의 종말과 고통받는 다른 종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진다. 이번 겨울엔 유독 북극한파로 인한 기후난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했던 것 같다. 인플레이션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제 기후난민은 더이상 다른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변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놓인다. 지금까지는 미래의 우리의 아이들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더 외달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의 상황을 보면 바로 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 불과 10~20년 후면 경제적 은퇴할 나이에 접어들 중장년층에게 기후위기는 더 큰 고통을 실감케할지도 모른다. 더 이상 미래의 일이나 미래에 얼굴도 모르는 남의 아이 일이 아니다. 공존이나 공생처럼 인류애나 인간의 공적윤리에 기대어서만 발화함으로써 기후위기가 전혀 나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북극곰이 불과 10~20년 후의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당장은 지구수호나 얼굴도 모르는 미래의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일념이 생기지 않더라도 나와 관련한 사소한 문제의식들이 쌓인다면 그것이 곧 공존과 공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더 가열차게 문제를 파헤치고 나와 밀접하게 관련짓고 자성할 수 있는 책들이 모

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기후위기가 화두인 만큼 아직 만화분야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이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화계에서도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가 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모은 이 작품들을 토대로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가 자양분이 될 수 있다면 뿌듯할 것이다. | 서은영 |

기후와 생태, 지구 환경의 변화라는 화두 앞에 설 때마다 딸아이를 바라본다. 적어도 나의 성장기에는 머지않아 화석 연료가 고갈될 수 있다 정도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해가 심각할 수 있다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수준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지만, 정말 세상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까지는 다르지 않았었다. 당장 나만 해도 개울가에서 동네 친구들이랑 먹감고 하천에서 바로 잡은 물고기로 어른들이 어죽 끓여줬던 경험이 생생하고, 심지어 대학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났다. 그래서 '그래 조심해야겠지, 하지만 당장은 아니지 않아?' 정도 감상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지구가 괜찮았던 마지막 시기였던 모양이다. 어느 사이엔가 비유나 은유도 아닌 객관적인 숫자 자체가 아 우리는 지금 확실히 망조다 하는 걸 보여주기 시작했다. 여름과 겨울을 건디는 일 자체가 너무 힘겹고, 공기 질은 청정기가 없으면 버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난 딸아이는 비염으로 말미암은 알러지에 시달리며 연신 피부를 긁고 심지어 코로나19까지 겹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딸이 방학 때 비교적 공기가 나은 편인 제주의 이증사촌네에 묵으러 가면 비염과 아토피가 거의 없는 걸 보면서 '여기가 우리의 바람계곡'인가 하는 심정이 들었더랬다.

하지만 그 제주마저도 끝없는 하수 배출로 바다 속 환경이 폐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는 뉴스가 돈다. 정작 제주에선 굴이 50년 정도 지나면 기온 상승의 여파로 한라산 중턱 일부에서나 나는 과일이 될 전망이다. 그나마 낫다 생각한 곳이 이렇다. 그나마 나도 길어봐야 50년 안에는 생을 다 하려면, 딸은 이제 이런 환경

재앙을 훨씬 더 긴 시간에 걸쳐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도 모자라 옆 나라는 방사능 유출 사고를 내놓고 는 책임감도 없이 바다를 더럽혔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만화를 비롯한 대중문화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핵폭발 후의 디스토피아와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많이 다루어왔다. 이번 화두를 만나며 이번에 우리가 다룬 작품 외에도 수많은 작품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다소 교조주의적인 환경 운동 레토릭이 담긴 작품들은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 차라리 안심(?)이 되는데, 막상 하나 같이 머지않은 미래엔 이럴 거야, 라고 말하는 작품들을 떠올리면 그 미래가 오지 않게끔 애써야 한다는 마음조차 품을 수 없이 그냥 예정조화가 될 것이라는 심정에 절망감이 든다.

물론 인간은 <인터스텔라>의 대사마냥 어떻게든 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막상 지구 입장에서선 어떨까.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만화판 속 옛 인류마냥 일단 정화시키고 현 인류를 소거하는 편이 맞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시달리지 않을까. 아닌 게 아니라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의 크라우저는 인간이 멸망하는 게 진정한 친환경이라며 일렉기타를 쥐어뜯는다. 결국 상통하는 이야기인지라 개그씬인데 웃지를 못하겠다.

그렇다고 환경이 이 지경인데 예술이 더 중요하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미술품에다 스프 뿌리는 게 친환경이고 환경보호인 건 아니다. 절망과 걱정을 쌓는 한편으로, 문화예술로 우리의 현재를 점검하며 조금이라도 나와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며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닐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은 작품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보루인 문화예술을 버리지 않으며 상황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그저 바라고 바란다. 딸의 삶을 위해서도.

| 서찬휘 |

〈인간과 환경〉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다루면서 뭔가 혼란이 일었다. 꽤 광범위한 주제라 생각했는데 그리
는 이미지와 딱 떨어지는 작품이 많지 않았다. 다른 혼란은 사실은 상당히 실천적인 주제인데, 몸의 실천이
그다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뭔가 우선적인데라는 느낌. 그리고 보면 몸도 안움직이니 작품도 충분하지
않다는 게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라는! 그럼, 내가 뭔가 실천하기 시작하면 작품도 많아진다는? 나 때
문일지도, 작품이 많이 없는 건. 반성하겠습니다. | 한상정 |

1호를 발간했을 때, 계간으로 발행하고자 마음먹었지만 막상 해 보니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1호 발
간 후, 작년 하반기에 〈문화다양성 만화 함께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잡지〈인천문화현장〉에서 진
행한 성소수자 만화 관련 좌담회를 준비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다시 2호 준비에 돌입했다. 해가 바
뀌고, 1호 발간 후 8개월 만에 2호가 나온다. 많은 작품들을 검토하고 토론하고 선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이번에 더욱 절감했다. 그래서 선부르게 ‘계간지’라고 선언한 것을 후회하며 이번 호부터
발간물의 정체성을 ‘무크’로 변경했다. 계간지는 아니지만, 일 년에 2~3회 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발적인 무자본 연구활동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일 년을 꾸준히 이어왔다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주제로 정할 때 이것은 동시대에 꼭 필요한 큐레이션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첫 큐
레이션 과정에서 우리는 난관에 봉착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사회적 담론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
만, 만화 쪽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작품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주제를 바
꿀까도 고민했지만,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의미를 만들어보자고 협의했다. 그래서 직접적인 기후위기나
환경문제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다룬 작품까지를 대상으로 삼아 보다 폭넓게 접근하게 되었다.
그러한 시간을 거쳐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읽고 싶은 19권의 목록이 만들어졌다. 큐레이션의 과정에
서 잘 몰랐던 작가와 작품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프로젝트의 기쁨이다. 우리의 작업은 이러한 큐레
이션의 기쁨을 나누는 행위이자, 기후위기시대 홀통만화연구실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다. | 김성진 |

2023년 봄, 기후위기와 관련해 어느 잡지에 청탁받고 글을 쓴 적이 있다. 부끄럽지만, 그 당시 쓸 말한 작품이 사실상 별로 없었다고 고백했던 것 같다. 있어 봤자, 당위성만을 내세우는 뻔한 작품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작품이 없는데, 어떻게 평론가가 글을 쓸 수 있겠는가. 이런 뉘앙스로 글을 적은 것이다. 하지만 나의 이 목소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 이유는 작품이 없을 뿐이지 기후위기는 무섭도록 재앙처럼 다가오고 있으니, 무엇이랴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만치 않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두 눈을 가린다. 속물 같고 부끄럽지만 감출 수 없는 내 모습이다. 당장 인정 욕망을 채워야 하고, 원고료를 벌어야 하고, 글을 모아 책을 출간해 밥벌이해야 한다. 이기적이지만 내 모습인 걸 어떻게 하라. 그렇다면 소심하고 속물 같은 평론가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활에서 소소한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을 적게 쓰고, 고기를 덜 먹고, 건강한 두 다리로 걸어 다니고 등등. 그리고 직업으로서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등장한 동시대 작품에 대해 정성껏 리뷰를 써서 알리는 것이 있을 것이다. 난 이 작업을 수행했다. | 문종필 |

흙통만화연구실 및 필진 소개

흙통만화연구실

만화를 사랑하는 연구자, 평론가, 칼럼니스트, 만화인이 함께 모여 만화를 연구합니다. 한 뼉 더 깊이 만화를 들여다보고, 작품이 가진 사회적 의미와 새로운 쓰임새를 모색합니다.

김성진

문화기획자, 만화인,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만화 전시, 축제를 기획했고 비평과 연구도 조금씩 하고 있다. 좋아하는 만화를 나누고 더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다. 대안 만화 전문서점 <흙통>의 공동운영자.

문종필

우연히 만화인의 길을 걷게 되어서 요즘은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다. 작년까지 인천일보에 [문종필의 오늘 만화]라는 코너에 글을 썼고, 지금 현재는 오마이뉴스와 『지금, 만화』, <만화규장각> 등에 만화 관련 글을 쓰고 있다. 문학평론집 <싸움>(2022)을 출간했다.

서은영

만화연구자 및 평론가. 근대만화부터 웹툰까지 만화와 웹툰이 사회, 문화에 끼친 영향력에 주목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일을 업으로 삼아 고군분투하며 꾸준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찬휘

만화 칼럼니스트, 만화 창작자. 저서 『키워드 오덕학』 『나의 만화유산 답사기』 『덕립선언서』 등. 홈페이지 : seochanhwe.com / 블로그 : blog.naver.com/seochanhwe

송하원

대안 만화 전문서점 <흙통> 공동대표. 칸과 칸 사이 비어있는 공간의 이름을 따서 서점을 차렸다. 만화와 다양성을 매개로 사람, 마을, 문화를 잇는 '사이의 상상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최기현

만화평론가. 서브컬처에 담긴 가치를 알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 재미있는 RPG 게임이나 웹소설, 웹툰, 전시와 공연을 추천해준다면 언제나 환영이다.

한상정

인천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문화대학원 교수. 만화예술학이 주된 관심사지만 만화사, 만화 문화, 시민의 만화 향유, 만화 산업 생태계 구축, 북한 만화도 연구하고 있다. 만화연구의 초석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만화학의 재구성>(2021)을 집필했다.

학교/단체/모임에서 만화와 관련한 연구/비평/칼럼/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통만화연구실로
연락 주십시오.

홈통만화연구실의 만화 연구/비평/기획 전문가들이
도와드립니다. 만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제
안, 협업에도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ometong2020>

이메일 | hometong2020@naver.com

연구실 | 02-745-1447